

놀부전 2

때: 옛날

곳: 어느 농촌 마을

나오는 사람: 놀부, 놀부 아내, 흥부, 흥부 아내, 아낙네들(1,2,3), 농부들(1,2,3), 노인들(1,2,3), 하인들, 해설자

(무대 왼쪽은 놀부네 집 오른쪽은 흥부네 집이다. 막이 오르면, 농촌 마을의 너른 마당이 펼쳐진다. ‘놀부전’이라고 쓴 파란 천의 깃발도 함께 나무꾼다.)

해설자: 제비다리 고쳐 주고 큰 복을 받은 흥부를 본 심술쟁이 놀부, 공연히 억울한 생각에 잠을 설친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 꼬치꼬치 캐 물었습니다. 드디어 이듬해 봄, 놀부 집에도 제비들이 날아 들었고 집을 지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이 놀부가 제비집에 손을 넣어 제비 다리를 ‘뚝’ 분질러 놓고 다리를 고쳐 줍니다.

합창단: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다네.
맘씨 나쁜 형 놀부는 제비 다리 부러뜨려
박씨 하나 얻었다네. 큰 바가지 열렸다네.

(흥부네 사랑방. 놀부가 상석에 앉아 있다.)

놀부: 그래 박은 몇 통이나 열렸었더냐?

흥부: 수도 없이 많이 열렸습니다. 그런데 그 중 커다란 박이 세 통 있었습니다.

놀부: 커다란 박이라고?

흥부: 색깔도 환하고, 모양도 큼직한 것이 -----.

놀부: (말을 가로채며) 큼직한 것이?

흥부: 꼭 한가위 달덩이 같았습니다.

놀부: 그래? 바로 그 세 통의 박이 복을 주었던 말이지?

흥부: 그렇습니다. 형님.

놀부: 우리 지붕에도 달덩이 같은 박이 세 통 있는데, 내게 복을 주겠지?

흥부: 물론이지요. 형님.

놀부: (미소를 지으며 일어선다.) 알겠다. 나는 가마.

(흥부도 따라 일어서자 조명이 꺼진다. 잠시 뒤, 흥부네 안방. 놀부 아내 상석에

앉아 있다.)

놀부 아내: 그래, 박은 그 세통만 뺐는가?

홍부 아내: 모두 뺐지요.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은 바로 그 세 통의 박
이었습니다.

놀부 아내: 그랬군. 첫째 박에서는 뭐가 나왔다고 했지?

홍부 아내: 온갖 곡식과 금은 보화가 계속 나왔습니다.

놀부 아내: (말을 가로채듯이) 둘째 박에서는?

홍부 아내: 멋진 비단과 살림살이가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.

놀부 아내: 셋째 박에서는?

홍부 아내: 이 집과 하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

놀부 아내: 우리 지붕에도 달덩이 같은 박이 세 통 있는데, 우리에게 복을 주겠
지?

홍부 아내: 물론이지요. 형님.

놀부 아내: (입이 찢어질 듯 웃으며 일어선다.) 알겠네, 나는 가네.

(홍부 아내도 따라 일어서자 조명이 꺼진다. 잠시 뒤, 마을 길.)

놀부: 여보 마누라, 우리 지붕에 매달린 그 달덩이 같은 박을 보았소?

놀부 아내: 물론이지요. 보다마다요.

놀부: 우리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분명 세 통이렸다?

놀부 아내: 그렇습니다. 분명 세 통입니다.

놀부: 인제 며칠만 있으면 -----.

놀부 아내: (맞장구 치며) 며칠만 있으면 -----.

놀부: 우하하하하하

놀부 아내: 오호호호호호.

(놀부 내외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. 무대가 다시
밝아지면 무대 한가운데는 놀부네 집 마당이다. 커다란 박을 놓고 하인 둘이
양쪽에 앉아 톱질을 하며 박을 탄다. 곁에 하인들이 둘러서 있고, 놀부와 놀부
아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본다.)

합창단: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.

여기여라 이 박 열면 금은보화 곡식 비단

온갖 살림 쏟아진다. 마구마구 쏟아진다.

하인들: 자, 첫째 박이오!

(‘평’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 갈라지며 흰 연기가 솟아오른다. 갑자기 비명 소리와 함께 하인들 우왕좌왕한다. 소리가 사라지면서 이윽고 무대가 어두워진다. 동네 빨래터. 아낙들 셋이 두런거린다.)

아낙네1: 첫째 박이 갈라지고 뭐가 나왔대?

아낙네2: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사들이 한 무리 나왔다는구먼.

아낙네3: 몽둥이와 올가미를 들고.

아낙네2: 이상한 주머니도 하나 가지고 왔다면서?

아낙네3: 놀부네 돈과 금은보화를 그 주머니에 전부 넣고 사라졌다는구먼.

아낙네1: 저런, 천벌을 받은거야.

아낙네2: 아무렴,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.

아낙네3: 그렇게 심술을 부리더니.

(무대 어두워진다. 무대 뒤쪽에서 하인들 소리만 들린다.)

소리: 자, 둘째 박이오!

(‘평’하는 소리에 이어 불안한 팽과리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와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린다.)

농부1: 둘째 박이 갈라지고 뭐가 나왔대?

농부2: 험상궂게 생긴 각설이패가 우르르 몰려 나왔는지?

농부3: 놀부네 마당에 앉아 살림살이를 다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질러 댔다는구먼.

농부2: 재산과 살림살이를 다 빼앗은 뒤에야 사라졌는지 뭐야.

농부1: 저런, 천벌을 받은 거야.

농부2: 아무렴,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.

농부3: 그렇게 심술을 부리더니.

(무대 어두워진다. 무대 뒤쪽에서 하인들 소리만 들린다.)

소리: 자, 셋째 박이오!

(‘평’하는 소리에 이어 비명 소리와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린다. 잠시 뒤, 동네 정자 나무 밑. 노인들 셋이 두런거린다.)

노인1: 셋째 박이 갈라지고 뭐가 나왔다고?

노인2: 여러 흉측한 괴물이 쏟아져 나왔다네.

노인3: 괴물들은 마지막으로 놀부네 기와집마저 없애 버리고, 하인들까지

전부 데려갔다는구먼.

노인1: 저런, 천벌을 받은거야.

노인2: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.

노인3: 그렇게 심술을 부리더니.

(무대 어두워진다. 해설자가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다.)

해설자: (판소리의 아니리처럼) 자, 우리들의 놀부전은 이렇게 계속 됩니다.

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체하며, 천년만년 혼자만 잘 살 것
같던 놀부. 그 놀부의 심술보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으니 결국
놀부는 이렇게 큰 벌을 받은 것이지요. 자, 그럼 놀부는 어떻게
되었을까요?

(해설자의 어갯짓을 따라 다시 농악 소리가 어우러지자, 사람들 어갯짓하며 노래 부른다.)

합창단: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다네
맘씨 고운 동생 흥부 푸짐한 복 받았다네.
맘씨 나쁜 형 놀부는 큼직한 벌 받았다네.
어야디야 어기여라 어야디야 어기여라

(마을 사람들 무대 밖으로 하나 둘 사라질 때, 무대 점점 어두워진다. 흥부네 집.)

흥부: 당신 생각은 어떻소?

흥부 아내: 어떻긴요? 당신 생각이 제 생각이지요.

흥부: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?

흥부 아내: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몰라요?

흥부: 그럼 형님네와 함께 살자는 이야기요?

흥부 아내: 물론이지요.

흥부: 고맙소, 여보.

흥부 아내: 고맙긴요, 당연하지요.

흥부: 자, 우리가 형님네를 모시러 갑시다.

(흥부와 흥부 아내 일어선다. 조명이 꺼진다. 잠시 뒤, 놀부네 집.)

놀부: 당신 생각은 어떻소?

놀부 아내: 어떻긴요? 당신 생각이 제 생각이지요.

놀부: 아우네 집으로 가야겠지?

놀부 아내: 동서가 가만히 있을까요? 옛날 생각을 하면 -----.

놀부: 그래도 어찌겠소? 형제인데 -----.

놀부 아내: 그렇지요? 형제인데-----.

놀부: 자, 아우네로 갑시다.

(놀부와 놀부 아내 일어선다. 조명이 꺼진다. 잠시 뒤, 마을 길. 흥부 부부와 놀부 부부가 서로 만난다.)

흥부: 형님, 저희 집으로 가지지요.

놀부: (공연히) 싫다. 그렇게 안 한다.

흥부 아내: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? 어서 저희 집으로 가지지요.

놀부 아내: (공연히) 싫네. 그렇게 안 하겠네.

놀부: (못 이기겠다는 듯이) 여보, 어찌지? 아우가 이러는데 -----.

놀부 아내: 글썄 말이에요.

놀부: 정 그렇다면 ----.

놀부 아내: 할 수 없지요.

놀부: (고개를 숙이며) 내가 죄가 많으니라.

놀부 아내: (고개를 숙이며) 나도 그래요.

흥부: 원 형님도.

흥부 아내: 무슨 말씀을 -----.

(네 사람 서로 손을 잡고 흥부네집 쪽으로 간다. 흥겨운 농악 소리가 들린다. 무대 어두워지며 막이 내린다.)